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 조성 정책 실효성 강화 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정가원 연구위원 (Tel: 02-3156-7008 / E-mail: gawon@kwidimail.re.kr)

1인 가구의 관점에서 바라본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초록

- 가족구성에 있어서의 유동성과 다양성이 증가하고, 지역사회가 개인 및 가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구성요소와 정책수요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개념 및 구성요소와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지원 욕구 등을 분석하여 가족친화 지역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과제를 도출하였음.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과 가족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지역사회의 포용성에 대한 기대가 높았고, 가구유형 및 성별에 따라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수요가 다르게 나타났음.
- 1인 가구의 경우, 안전한 지역환경, 편리한 교통환경, 쾌적한 지역환경, 충분한 편의시설, 부정적시선·차별이 없는 환경, 개인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특히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1인 가구는 전체 응답자에 비해 일하는 개인이 일과 생활을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지역환경 즉, 편리한 교통, 편의시설의 접근성 등을 중시하는 한편, 부정적 시선과 차별 해소에 대한 요구도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남. 또한 1인 가구의 경우 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크고, 정서적 지지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이를 상쇄시켜줄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사회자본(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 공통관심사로 묶인 지역사회 내 공동체 소속, 이웃 간 자원의 공유 및 소통과 교류 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마지막으로 도서관,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비상업적 공간, 구민체육시설 등 혼자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인프라에 대한 1인 가구의 수요가 높게 나타났음.
- 앞으로 가족친화정책은 가족친화의 개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범위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사회문화와 사회자본의 중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유관정책 및 사업과의 실질적 연계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개선도 필요한 과제임.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항목(1+2+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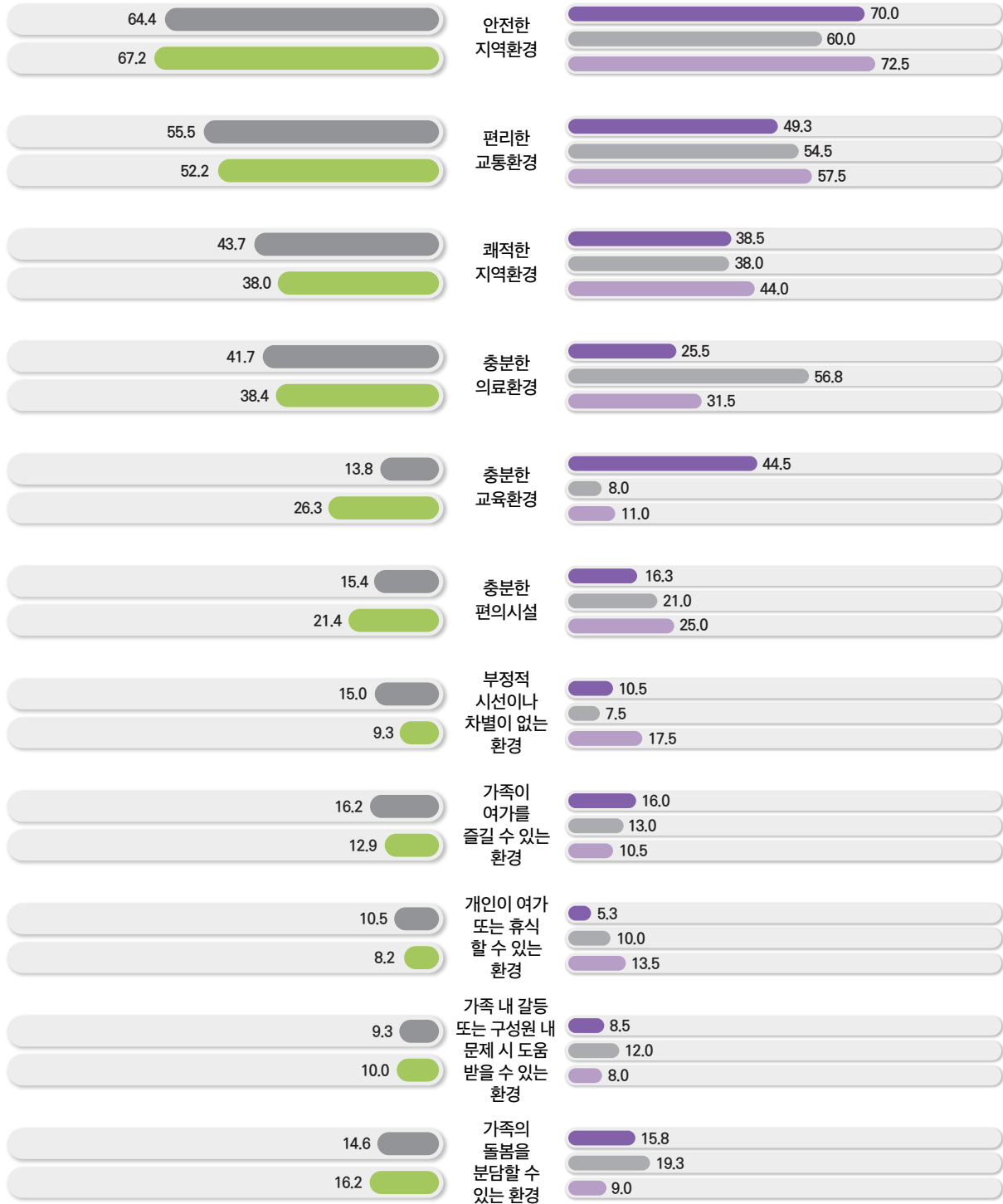
(단위 : %)

성별

■ 남성 ■ 여성

가구유형별

■ 자녀 양육 가구 ■ 노인 가구 ■ 1인 가구



주: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항목 3가지 선택. 각 문항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 제시

1. 배경 및 문제점

- 가족친화 지역사회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가족 내 돌봄수요를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고 가족의 여가 및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내 인프라와 서비스의 중요성 및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강조하였음. 또한 가족친화 지역사회는 가족기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일·가정 양립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 정의되기도 하였음.
- 한편 기존의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정책이 유자녀 가족과 같은 특정 유형의 가족을 정책대상으로 전제하고 가족의 돌봄 및 재생산 기능 지원에 정책의 범주를 한정하여 가족다양성과 개인으로서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비판도 있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가족친화 지역사회의 구성요소에 대한 파악을 통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방향성, 가족친화적 공동체 조성을 위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2. 가족친화 사회환경에 관한 지역주민 조사 분석결과

① 조사개요

구분	내용
대상	✓ 서울·경기 수도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20대 이상 지역주민 1,000명 • 성별 구성: 남성 247명(24.7%), 여성 753명(75.3%) • 가족유형별 구성: '자녀양육가구' 400가구, '노인가구'(응답자 본인이 65세 이상) 400가구, '1인 가구' (30-40대) 200가구
표본추출	✓ 가족유형별, 지역별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대면 면접조사(1인 가구의 경우, 웹조사 병행)

② 조사결과

- 조사응답자의 40.9%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범위를 기초자치단체로 인식하였고, 28.5%가 읍·면·동, 22.5%가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인식하였음.
- 1인 가구 응답자의 경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범위를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45.0%로 높게 나타났음.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구성요소

- 전체 응답자는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의 안전, 편리한 교통, 의료 충분성, 쾌적성을 중요시하는 가운데, 그 다음 순위로 자녀양육가구의 경우 교육과 가족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노인가구의 경우 편의시설과 가족돌봄을 분담할 수 있는 환경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인 가구의 경우, 안전한 지역환경, 편리한 교통환경, 쾌적한 지역환경, 충분한 편의시설, 부정적시선·차별이 없는 환경, 개인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특히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1인 가구는 전체 응답자에 비해 일하는 개인이 일과 생활을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지역환경 즉, 편리한 교통, 편의시설의 접근성 등을 중시하는 한편, 부정적 시선과 차별 해소에 대한 요구도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1>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항목 <1+2+3순위>

(단위 : %)

		응답자 수	안전한 지역 환경	편리한 교통 환경	쾌적한 지역 환경	충분한 의료 환경	충분한 교육 환경	충분한 편의 시설	부정적 시선이나 차별이 없는 환경	가족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	개인이 여가 또는 휴식할 수 있는 환경	가족 내 갈등 또는 구성원 내 문제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환경	가족의 돌봄을 분담할 수 있는 환경
전 체		1000	66.5	53.0	39.4	39.2	23.2	19.9	10.7	13.7	8.8	9.8	15.8
성별	남성	247	64.4	55.5	43.7	41.7	13.8	15.4	15.0	16.2	10.5	9.3	14.6
	여성	753	67.2	52.2	38.0	38.4	26.3	21.4	9.3	12.9	8.2	10.0	16.2
응답자 유형	자녀 양육 가구	400	70.0	49.3	38.5	25.5	44.5	16.3	10.5	16.0	5.3	8.5	15.8
	노인 가구	400	60.0	54.5	38.0	56.8	8.0	21.0	7.5	13.0	10.0	12.0	19.3
	1인 가구	200	72.5	57.5	44.0	31.5	11.0	25.0	17.5	10.5	13.5	8.0	9.0

주: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항목 3가지 선택. 각 문항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 제시

- 특히 1인 가구가 안전성에 대해 부여하는 상대적 중요도(다른 환경적 특성에 비하여)는 매우 높았고, 폭력이나 절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 경찰은 주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준다는 문항(이상 지역사회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조사문항)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1인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1인 가구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금연구역이 잘 규제된다’, ‘쓰레기 분리배출이 잘 된다’는 항목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전체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나는 내 이웃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문항(지역사회의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

조사문항)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1인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1인 가구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염려의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2> 지역사회 특성 중 1인 가구가 중요시하는 항목

(단위 : %)

		1인 가구						전체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중요도 →				매우 중요함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중요도 →				매우 중요함
안전	범죄로부터의 안전	0.5	1.5	5.5	11.0	20.5	61.0	0.4	0.9	3.8	7.3	34.6	53.0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	0.5	2.0	7.5	10.5	19.0	60.5	0.7	1.3	4.5	7.7	33.9	51.9
	경찰은 필요할 때 도움을 줌	1.0	2.5	7.5	16.0	20.0	53.0	0.2	1.1	3.8	9.5	39.6	45.8
편리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	0.5	2.5	5.5	15.0	22.5	54.0	0.4	1.1	2.8	9.9	40.7	45.1
쾌적성	금연구역 규제	4.0	8.0	13.0	17.0	23.5	34.5	1.4	3.0	6.8	13.5	44.4	30.9
	쓰레기 분리배출 잘 됨	3.0	4.0	6.0	22.0	27.0	38.0	1.0	1.6	4.2	10.6	52.1	30.5
사회자본	이웃으로부터 신변의 위협 못 느낌	1.0	1.5	4.5	11.0	30.0	52.0	0.5	0.9	2.4	8.4	41.4	46.4

주: 1(전혀 중요하지 않음) ↔ 6(매우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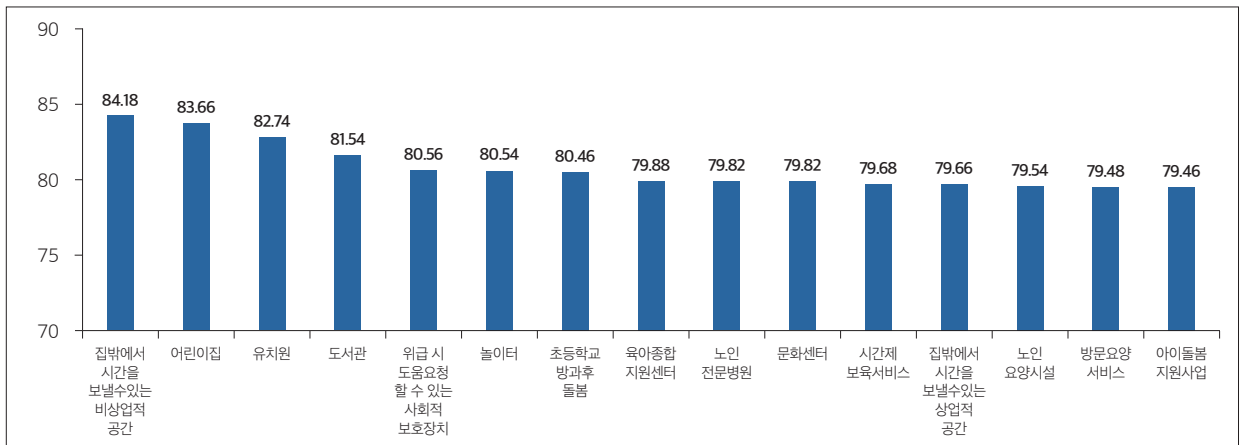
① 편의시설/의료기관/공공시설 등에서 영유아 및 아동, 노인, 1인 가구를 존중하며 친절하게 대한다는 항목이 본인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100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가 가족친화 지역환경을 구성하는 돌봄, 여가, 정서적 지지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100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보다 높았음. 이를 통해 실제 주민들도 가족친화 지역사회를 형성함에 있어 개인의 특성 또는 가족의 유형에 따른 부정적 시선, 혐오, 차별이 없는 환경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 정책지원 수요

③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해(여기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시설 및 서비스, 그리고 아직은 보편화 되지 않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모두 포함됨)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 각 시설과 서비스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100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는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비상업적 공간(84.18), 어린이집(83.66), 유치원(82.74), 도서관(81.54), 위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장치(80.56), 놀이터(80.54), 초등 방과후돌봄(80.46), 육아종합지원센터(79.8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전체 응답자의 정책지원 수요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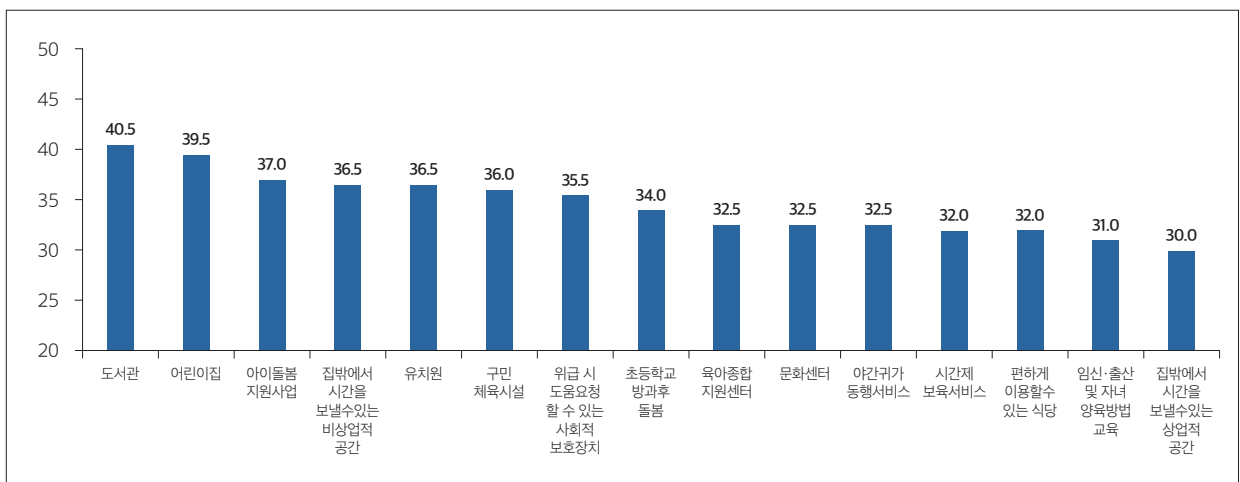


주: 각 항목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 제시

- 아동과 노인돌봄과 관련된 시설과 서비스가 대체적으로 높은 점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아동과 노인돌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문화센터(79.82),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상업적 공간(79.66), 방문간병도우미(78.84),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당(78.82), 구민체육시설(78.74),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 관련교육(78.10) 등의 점수도 높은 편이었음.
- 이 중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비상업적 공간, 도서관, 위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장치, 방문간병도우미,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 관련교육 등에 대해 조사응답자가 인식한 필요성은 기존에 알려진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롭게 확인된 점이라고 할 수 있음.
- 1인 가구의 응답을 살펴보면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지원 수요의 측면에서 도서관(40.5%),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비상업적 공간(36.5%), 구민체육시설(36.0%), 위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장치(35.5%)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그림 4] 1인가구의 정책지원 수요

(단위 : %)



주: "매우 필요함" 응답 비율

③ 1인 가구의 특성과 정책지원 요구

- ① 1인 가구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는 크고 정서적 지지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이를 상쇄시켜줄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사회자본(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 공통관심사로 묶인 지역사회 내 공동체 소속, 이웃 간 자원의 공유 및 소통과 교류 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② 또한 도서관,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비상업적 공간, 구민체육시설 등 혼자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인프라에 대한 1인 가구의 수요가 높게 나타났음. 즉 1인 가구를 위한 지역사회 내 사회자본을 확대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접점으로 도서관, 구민체육시설 등을 고려하고, 1인 가구가 위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정책제언

① 정책방향

- ① 가족친화 개념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 대상의 확대
 - ▶ 가족친화의 개념이 일·가정양립 지원 및 돌봄의 사회적 분담의 범위를 벗어나 “가족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보다 평등한 방식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까지 포괄
 - ▶ 가족을 고정적인 실체로 전제하지 않은,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요구와 양상의 변화가능성을 염두에 둔 가족친화의 개념을 재정립
 - ▶ 1인 가구를 가족친화 정책에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
 - ▶ 가족친화 개념의 확장을 통해 가족다양성을 기존 정책에 주류화시키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해 시의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도모
 - ▶ 앞으로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가족중심주의보다는 가족구성원의 개인으로서의 가치가 더 우위를 점하게 되는 추세라고 할 때, 가족친화 정책에서도 가족 내의 개인으로서의 가족구성원과 1인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대안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모색
-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 범위의 확대
 -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범위에 개인의 특성 또는 가족의 유형에 따른 부정적 시선, 혐오, 차별이 없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으로 다름에 대한 인정과 존중, 배려에 대한 공감대를 포함
 - ▶ 가족(1인 가구 포함)이 사회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와 인프라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소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

-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각 구성항목과 요인들에 대해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점을 3A 체계(Appropriateness-적절성, Acceptability-용인성, Accessibility-접근성)를 통해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 행정 및 서비스 인프라를 개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구체적 목표 설정

- ▶ 기존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목표는 지역사회 의 돌봄기능 강화, 가족의 여가·문화생활 증진, 지역사회의 쾌적성과 안전성 개선 등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새로운 목표로 지역사회 내 통합과 소통 증진을 추가하는 안을 제시
- ▶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와 사회자본(사회적 연대, 네트워크)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사회 내 이웃·세대 간 통합과 소통의 중요성을 환기
- ▶ 지역사회 내 주민을 위한 비상업적 공간의 확보도 중요

유관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

- ▶ 여성친화도시, 도시재생사업, 고령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등 유관정책 및 사업과의 차별성 속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과의 연계 지점을 각 정책 및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추진체계가 함께 모색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

2 향후 과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중앙부처의 역할

- ▶ 가족친화 개념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 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위해 가족친화법을 개정
-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대상에 1인 가구를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것인지 혹은 적어도 1인 가구가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
- ▶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서 가족실태조사 시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것을 규정한 것처럼 가족친화법 내에도 본 연구의 조사결과 확인된 1인 가구의 안전과 정서적 지지에 대한 정책수요를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 및 결정
- ▶ 가족친화 개념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대상이 확대된다면 이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 반영
- ▶ 상기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방향성 속에서 가족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이웃·세대간 소통과 통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운영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 ▶ 가족친화법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추후 기본계획에 근거한 시행계획의 수립 시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가지는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가족친화 사회환경과 관련된 정책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

- ▶ 1인 가구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염려의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차원에서 안전한 환경 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점검방안을 마련
- ▶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개인의 특성 또는 가족유형으로 인한 혐오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
- ▶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 확인된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비상업적 공간’에 대한 높은 수요에 대응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가족센터 역할 재정립

- ▶ 여성가족부에서는 기존의 건강가정지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생활SOC의 한 유형으로 선정된 가족센터로 전환하는 수순을 밟고 있으며 새롭게 개편되는 가족센터에서는 기존의 기본사업인 가족교육·상담·돌봄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외에 가족활동을 지원하고, 이웃·세대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 예정
- ▶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센터 건립과 관련된 향후 계획에서도 1인 가구를 포함한 가족형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가족센터에서 지역의 1인 가구 내 공통수요와 다양성을 반영한 사업을 운영하고 이들의 사회적 고립과 무연고화를 예방
- ▶ 노인가족에 대한 돌봄이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을 통해 사회적으로 분담되고 있으나 여전히 가족 내에서 노인돌봄을 기획하고 일정부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지, 교육, 안내 등을 가족센터에서 제공
- ▶ 이웃·세대간 소통 강화도 가족센터로의 개편을 통해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으로 이를 통해 개인의 특성 및 가족유형에 따른 부정적 시선, 차별, 혐오가 없는 지역사회 문화와 이웃 간 네트워크(사회자본)를 조성
- ▶ 중앙정부는 가족센터의 기본 운영가이드를 제시, 이를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는 지역 상황을 종합한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이를 실행
- ▶ 각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한 가족센터에서는 관내 가족친화와 관련된 시설 및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연계 및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